metro
메트로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제3002호 www.metroseoul.co.kr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 제외 우여곡절 끝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를 제외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1년 끈 단말기 유통법 '누더기'

핵심인 분리공시 내용 빠져 반쪽짜리 법안 평가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6개월마다 조정키로

1년여 가까이 진통을 거듭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누더기가 됐다.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 하부 고시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됐다. 통신업계와 야당 의원, 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하는데 합의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으로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의 내용이다.

이동통신 3사는 분리공시 도입에 동조했고, 휴대전화 제조사 중 LG전자마저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리공시 고시안 통과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 취지를 살리고 분리요금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유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역시 삼성 편을 들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개혁위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반쪽짜리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대다수 국민은 이번 시행으로 고가였던 단말기 가격의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며 "국민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도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게 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거나 이통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합친 금액을 공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분리공시 내용을 제외한 단말기 유통법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몰 기간을 설정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첫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되 6개월을 주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서재필기자 ...@metroseoul.co.kr

서울역 고가 녹지공원 조성

원형 보존 2016년 완공

서울역 고가에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같은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원이 2016년까지 조성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시찰하면서 "서울역 고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안전, 편의, 경관을 고려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도 서울역 고가처럼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 등에서 원형 보존을 주장,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의 랜드마크로 거듭났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도 도시 인프라 이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라며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판 등만 제거하고 최대한 원형을 보존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시는 고가가 사대문 내 문화유산, 건물들과 연결되면 해당 지역 일대가 명소화돼 남대문시장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고가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 후 내년 착공해 2016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생보사 징계 '용두사미' 되나

기자 수첩
김형석
<금융시장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칼을 빼들었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금융질서'를 바로 세워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생보사 징계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4일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징계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ING생명에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단 초엔 ING생명과 동일 약관을 사용한 삼성, 한화, 교보 등 국내 생보사 16곳에도 특별감사 공문을 보내 재해 사망보험금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생보사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징계를 받은 ING생명을 포함 생보사들이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생보업계의 거센 반발에 금감원은 빼든 칼을 슬그머니 내려놨다.

ING생명이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업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거나 징계를 내리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생보사의 반발로 이대로 물러선다면 218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계약자 손에서 사실상 떠나게 된다.

금감원이 진정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금감원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다.

상가 임차인 5년계약 보장

정부 고용·자영업자 대책

권리금 회수 방해 땐 손배
장년층 시간선택제 장려금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간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 고용 연장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보호와 고용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마르 공화국과 새정치민주연합

여의도 제트출

정당 제도 하에서 돌아가는 의회정치는 민주 정당이 제대로 서야 가능하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제대로 된 정당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에 올려 놓고선 한 달도 안 돼 끌어내렸다. 과정이야 어쨌든 결국 원내대표가 원했던 자리도 아닌데 올려 놓고선 흔들어댔고 결국 탈당 논란까지 만들었다. 당 해체 위기까지 있었다.

이 대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올랐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만들었지만 그 민주주의의 재제 때문에 몰락했고, 히틀러 집권 명분을 준 체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15년간 20번의 내각이 교체됐다. 제 1야당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11년간 지도부 교체가 26번이나 이뤄졌다. 올해는 현철수 세력과 합당 이후 3번째 지도부가 들어섰다. 한 해 두세번의 지도부 교체가 야당 현실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을 각자가 편한 대로 써 먹는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최근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예로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선거와 국민 투표로 히틀러 정권이 들어선 것을 들었다. 김현 의원도 의견을 보태 "국민은 히틀러를 뽑아올 수도 있으므로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고 '계몽주의'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내 정치 상황을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유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써먹었지만 누군가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야당을 보니 차라리 독재가 낫다. 독일 국민들도 가장 민주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버리고 히틀러를 선택하지 않았나"고 비꼬기도 한다. 야당의 모습에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된 지 오래다. 대통령제이지만 여의도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이다. 따라서 잘 정비되고 안정된 정당 제도가 확립돼야 정국이 불안하거나 혼란해지지 않는다.

현재 야당은 불행하게도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야당 지도부 회의 모습을 보며 "봉숭아 학당' 같다"고 혹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거대 야당이 안정 세력으로 자리잡고 수권 정당이 될지 의문이다. 야당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제 살을 찾길 바란다. 성공한 야당이 되려면 '교훈'을 엉뚱하게 국민 교화에 써먹지 말고 자기 반성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유보라

야당 불참해도 본회의에 법안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계속 불참한다면 예비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91건을 심정한다는 계획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26일 본회의는 계획된 대로 간다"며 "의장은 국회법을 준수할 뿐 직권상정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하면 계류 법안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5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국회의 '입법 제로' 상태도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조현정기자

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 회장 – 역대 최연소

새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김성주(사진)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다.

한적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위원 28명의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임기 3년의 제29대 총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재는 한적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다음 달 8일 28대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역대 최연소 한적 총재이자 기업인으로서는 첫 번째,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총재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 월드비전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의장, 피해 여성과 합의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정기자

서울 싱크홀 원인규명 감사

감사원 이르면 다음주 착수 … 롯데월드 연관은 제외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현상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다음 주 쯤 서울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지하철과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19일까지 20여일에 걸쳐 서울 시내의 도로와 지하철 인근의 싱크홀 현상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및 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공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싱크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대상에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송파구 석촌동 일대의 싱크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싱크홀과 관련해 제2 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은 들여다 보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서울 외 지역으로까지 확대할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김현 의원에게 쏠린 눈과 귀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뒤 24일 오전 경찰서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사건 기억 없다" 모르쇠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등은 19일 김 의원과 유가족 5명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현 의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는 이번 주 내로 고발인을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3일 오후 5시 1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의 진술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는지 등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 또는 "못 들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23일 조사에서 주로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폭행과 상해,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철도비리' 의원 범죄수익 모두 환수

검찰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송광호(72) 의원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의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담당 재판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혐의액수는 조 의원이 1억6000만원, 송 의원 6500만원이다.

재판부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두 의원의 범죄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윤다혜기자

판돈 3조7000억 수수료 4700억

캄보디아 근거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적발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로 4700억원을 벌어들인 기업형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5년간 판돈 3조7000억원대의 대규모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사이트 IT 담당자 노모(34)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서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총 10억원 이상의 판돈을 낸 장모(34)씨 등 82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외에서 인터넷 실시간 화상 카지노와 경륜·경마,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7만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3조7600억원의 판돈을 입금 충전받아 도박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7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조직의 주범으로 캄보디아에서 잠적한 이모(52)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다혜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성신여대 대동제

성신여대 총학생회 성신세대가 24~25일 이틀간 2014학년도 수정대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신여대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술 없는 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는 성신여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라는 의미에서 축제명이 'MAKE SOME NOISE : 함성(함께 하는 성신)'이다.

축제기간에는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연계해 나눔장터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83가요제, 도전골든벨 등 다양한 총학생회 기획행사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준비한 행사가 진행된다.

온몸에 하얀 반점 '기생충 사진'

metro HongKong

남성 엑스레이 경악

順德男愛吃魚生
全身針蟲密麻麻

최근 중국 인터넷이 온몸에 하얀 반점이 있는 엑스레이 사진이 떠돌아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사진은 광둥성 광저우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남성의 '기생충 사진'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심각한 복통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인터넷에서 현재 떠돌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자신의 사진이라고 말하며 평상시 생선회를 즐겨먹는다고 말했다.

전염병 전문의인 언즈바오는 "엑스레이에 핵핵이 찍혀있는 하얀 반점은 촌충이다. 이 정도로 심각한 환자는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산물은 저장·운송 과정에서 쉽게 살해 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셜록 홈즈가 사용한 총은?

metro Russia

무기 전시회 개최

В музее покажут оружие Холмса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무기박물관은 '셜록 홈즈 무기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큐레이터 나탈리아 에피모바는 "오래 전부터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이 사용했던 무기를 수집해 전시회를 열자는 생각을 했다"며 "셜록 홈즈가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시회 '셜록 홈즈의 무기' 바구와 진실'은 1·2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는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 등장한 무기가 전시된다. 2부에는 러시아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셜록 홈즈의 촬영 과정에서 사용된 소총과 권총류가 나온다. 셜록 홈즈가 사용했던 웨블리 리볼버 M K Ⅱ·왓슨 박사가 사용했던 리볼버 스미스 등이 대표적이다.

에피모바는 "전시회에는 총기와 함께 검도 전시될 것"이라며 "실제로 홈즈는 바이올린과 검술의 달인으로 묘사됐다"고 말했다.

/이고리 카라스조 기자·정리=조선미기자

美공습 침착한 시리아 왜?

반군조직 타격 등 반사이익 기대…서방과 관계회복 기회

미국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외치며 22일(현지시간) 시리아 공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예상과 달리 시리아는 침착한 반응이다.

알리드 엘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습 계획을 공습 전 이라크를 통해 전달 받았다"며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시리아의 이번 입장 표명은 러시아 등 몇몇 국가가 미국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시리아 정부가 미국 주도의 공습 이후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시리아에서 세력을 불리고 있는 IS나 알카에다 연계 반군인 알누스라전선이 미국의 공습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시리아 정부로선 반가운 일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조직 자유시리아군의 사령관은 이번 공습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다며 격분했다.

시리아 정부가 이번 공습을 서방 국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알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IS를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은 시리아 정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최근 미국 내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23일 CBS 방송에 따르면 FBI와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 개시 이후 경찰 등에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경계령을 내렸다.

FBI는 "알카에다에서 갈라져 나온 무장 테러 집단인 호라산을 주목하고 있다"며 "호라산이 서방 국가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과 자생적 테러리스트 모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IS) 공습에 동참한 아랍 5개국 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인도 '망갈리안' 화성궤도 진입 성공 인도 최초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이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한 24일(현지시간) 인도우주개발기구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 네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첫번째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낸 국가가 됐다. /AP 연합뉴스

중남미 '모기 습격' 몸살

환자 일부 고열로 사망…도미니카만 50만명

중남미 국가가 열대 숲 모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콜롬비아에서 생후 11개월된 여아가 숲 모기에 물려 고열로 사망했다.

여아는 '치쿤구니야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콜롬비아 보건당국은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열대 우림의 모기에 물려 걸리는 열병이다. 뎅기열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만 치사율은 낮다. 콜롬비아에서는 지금까지 19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최근 원인 모를 열병으로 13명이 숨졌다. 베네수엘라의 한 의료 단체는 이들 가운데 10명이 치쿤구니야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의료단체는 베네수엘라에서 6만 5000여 명이 치쿤구니야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실태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는 최근 398명이 환자로 판명됐고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남미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도미니카공화국이다.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신생아 100명도 감염자로 판명됐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6일 첫 환자가 나왔다. 칠레·파라과이·페루 등지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미기자

세계 최고의 안전기준으로 짓는다

롯데월드타워 & 롯데월드몰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안전문제 걱정 없다

최고의 안전 기준으로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와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을 마친 롯데월드몰은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있다. 롯데월드몰은 독립된 개별 건물로 개장 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 & 롯데월드몰 등 배치도

안전을 극대화한 롯데월드타워 기초(MAT)

롯데월드타워는 땅속 층에 직경 1m 길이 30m의 지반보강파일 108개를 박아 넣어 암반을 보강하고, 그 위로 가로세로 72m, 두께 6.5m의 견고한 구조물로 기초(MAT)를 시공했다. 이 기초(MAT)는 4,200톤의 철근과 8만톤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투입해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2.5배, 축구장 크기의 80퍼센트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이다.

세계적인 설계 기준보다 낮은 롯데월드타워 지반 침하량

초고층 빌딩은 그 자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암반이라 해도 어느 정도 침하가 발생한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초고층 빌딩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침하량을 예상하여 반영한다. 롯데월드타워는 세계 초고층 프로젝트 토목설계를 주로 맡아온 에럽(Arup, 영국)에게 설계를 맡겼다. 에럽(Arup)은 롯데월드타워 설계 시 총 39mm의 침하량을 예상했고, 현재까지 지어진 타워의 하중(45만톤)을 고려할 경우 23mm의 침하량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 나온 지반침하량 11mm는 당초 예측한 23mm보다 적은 수치다. 이는 지반이 안정하여 침하가 덜 되었다 볼 수 있다. 롯데월드타워 기초 하부에는 30개의 센서와 지표침하계 16개가 설치되어 지반 침하를 철저하게 계측하고 있다.

공사단계 지반 침하량 분석결과

깊고 단단한 2중 차수대책으로 지하수를 차단한다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은 S.C.R(Spot Grouting Rocket System)이라는 차수공법과 두께 1m의 지하연속벽이 단지 둘레 전체에 시공되어 지하수를 2중으로 차단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하루 450톤~670톤으로 유출허용 설계량인 1,350톤보다 낮으며 이 또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단지 전체를 둘러싼 지하연속벽과 차수벽

내풍·내진, 내화 설계를 통해 강풍·지진, 고열에 최고로 안전하다

롯데월드타워는 내풍·내진 설계가 되어 강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고열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견디는 고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폭열 현상에 대비하였다. 총 161,000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소화수원의 위치도 지하4층, 21층, 39층, 75층, 104층 등 5곳이 루프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최대 300분간 급수가 가능하다.

낙하물 방지 방호데크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완벽히 보호한다

공사 중 낙하물 방지를 위해 층 상부에 방호데크가 있다. 방호데크는 대한건축학회 전문가들이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를 반영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격하중을 계산하여 이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직 보호망'과 '낙하물 방지망'의 2중 안전망이 빈틈없이 안전을 지킨다

롯데월드타워는 자재 등의 낙하를 막기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외곽에 매층 4m 높이의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였다. 또한 마감 위로 최소 2개소의 낙하물 방지망까지 설치하여 2중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초고속 '라이프 보트(Life boat)' 피난용 승강기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로 생명을 구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초고속 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로 전환되어 피난안전구역과 1층만을 신속하게 운행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테러 발생 시 불과 연기가 완벽히 차단되는 공간으로, 타워 20층마다 1개소씩 총 5개소가 설치되어 각 층에서 최대 15분이면 대피가 가능하다.

〈대피공간 개념도〉

최첨단 종합방재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롯데월드타워는 한 곳의 종합방재실과 백업기능을 담당하는 두 곳의 부방재실이 운영된다. 종합방재실에서는 전력, 기계, 통신, 소방, CCTV 등 건물 내 모든 시스템이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통합 시스템에는 화재 발생 시 열감지 CCTV가 발화원을 포착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롯데월드타워 종합방재실은 방재 관련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24시간 쉼 없이 운영된다.

LOTTE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다

세계 최고 수준 롯데월드타워 & 롯데월드몰의 위상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왼쪽)과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현대제철-세아그룹

동부특수강 인수 경쟁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처음 드러냈다.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2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4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에 참석해 "동부특수강 인수에 상당한 의향을 가지고 있다"며 "인수 적정 가격에 대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인수전 참여설이 피지던 올해 초부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인수전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던 현대제철은 지난 8월부터 송충식 재경본부장을 주축으로 동부특수강 인수 타당성 검토 TF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특수강은 1979년에 설립돼 고강도 압금 강철을 가공해 각종 부품을 생산해 왔다. 연간 5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23%로 세아제강(43%)에 이어 2위다. 시장에서는 동부특수강의 가치를 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아그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동부특수강 인수의향서 제출은 25일 오후 2시가 마감이다. 업계는 현대제철과 세아그룹의 2파전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 ms

공대 출신 기술사, "홍보에 푹 빠졌죠"

사람이야기

■ 김제현 삼성엔지니어링 홍보팀 대리

획일이 미덕이고 효율과 능률만이 강조되는 시대다. 하지만 인생에까지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결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김제현 대리도 그런 이들 중 하나다.

"저의 이력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라고 의아해해요. 기껏 기술사 자격증 따놓고 전혀 관계도 없는 홍보팀에는 왜 지원했냐는 거죠. 간혹 안타까운 마음에 미친 것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전 이 선택에 매우 만족합니다."

/박선옥기자 ssd0810@metroseoul.co.kr

"내가 설계했던 프로젝트 직접 홍보 '짜릿'"

◆건축분야 최고 기술사 되다

올해 3월 홍보팀 막내로 들어온 김제현 대리는 직전까지도 바레인의 무하락 하수처리시설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프로젝트 리더였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회사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터였다.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축기사 취득 후 관련 경력이 6년 이상이 되야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건축분야의 최고 기술자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대사항만도 128개에 이른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작년까지 1차 평균 합격률이 9.1%에 불과해 고시와 곧잘 비교되기도 한다.

김 대리는 이처럼 자격요건부터 시험 난이도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건축시공기술사를 만 29세에 합격했다. 관련 경력이 6년이 되자마자 곧장 시험 준비를 시작, 그 해 바로 거머쥐게다. 당시 1차 합격률은 평균보다 낮은 7.9%였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또 제 스스로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기술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행히 학군사관(ROTC) 공병으로 있으면서 공사감독을 한 경력이 있어 2006년 7월 입사한 뒤 4년 만인 2010년 8월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경력을 채우고, 첫 응시에서 합격까지. 그의 얘기만 듣자면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 보인다. 그러나 김 대리는 건축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때부터 계획하고 간절하게 바랐던 일이 2010년에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에 대한 꿈을 갖고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2009년 미국공인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라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했어요. 이듬해 시험 자격이 됐을 때는 잔근처 독서실을 다니면서 1000시간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진정성·열정 가진 홍보맨 되고 싶어

김 대리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딴 뒤 대리로서는 드물게 프로젝트 리더라는 직책을 갖게 됐다. 소위 잘 나가는 직원이 된 셈이다. 그런 그가 현장 기술직과는 전혀 관계없는 본사의 홍보팀을 지원하자 주변 사람 모두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고 기술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직원만 회사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홍보팀이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지원했죠."

업무의 연관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오히려 실무를 겸비한 홍보맨인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회사와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현장 경험이 없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기술사로서 리더십과 실무경험을 쌓은 게 있다 보니 남들에게 어려운 용어나 기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이 같은 경쟁력을 갖췄다고 홍보업무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장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0년 넘게 공대생의 마인드로 살아온 그에게 정답이 없는 홍보영역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공대에는 공식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넣을지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홍보는 공식이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책으로도 배울 수 없다 보니 더욱 어려운데요. 선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기술사가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도 있는 거라고.

"대학교때 2급 교원자격증도 땄어요. 당시 공고에 한 달 동안 교생실습을 다녔는데, 그 역시 지금 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언제 또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겠어요. 홍보팀에 와서 제가 설계했던 바레인 무하락 하수처리시설 보도자료를 썼던 날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진정성과 열정을 가진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4' 드디어 나왔다

이돈주 사장 "전작보다 많이 팔릴 것"
S펜·엔터테인먼트 기능 대폭 강화

삼성전자가 5형대 대화면과 S펜을 탑재한 노트시리즈 최신작 '갤럭시 노트4'로 반격을 노리고 있다.

2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돈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 사장은 "갤럭시 노트4는 현재 예약 판매 상황이 전작보다 훨씬 좋다"며 "노트3보다 훨씬 많이 팔릴 것"이라며 판매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갤럭시노트4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예약판매를 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준비한 예판 물량 3000대가 예판 후 수시간만에 조기 소진되는 등 호조를 보였다.

이 사장은 최근 스마트폰 실적 부진에 대해서 "근래 사업 상황은 현시적으로 잠깐 어렵기는 하다"며 "삼성전자는 기술혁신 등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노트 엣지 출시 /연합뉴스

이 사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보조금 축소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 극복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헬스 기능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이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는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프리미엄 제품인 갤럭시 노트4는 사용자 중심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펜 성능과 엔터테인먼트 부분은 대폭 강화됐다.

S펜은 원하는 부분을 선택, 복사, 저장,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셀렉트', 칠판이나 종이에 쓴 메모를 카메라로 찍고 S노트와 연동해 콘텐츠를 인식하고 편집할 수 있는 '포토 노트' 등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갤럭시노트4에 기본 탑재되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밀크'는 장르별 추천 음악을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60만 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20도 화각 사진 '와이드셀피'를 지원해 손을 길게 뻗지 않아도 다양한 셀프 카메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 7000원이다. 중국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갤럭시 노트 엣지', '삼성 기어S', '삼성 기어VR'과 '삼성 기어 서클'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yuni@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코스닥
2055.84 (+6.73)	580.42 (+4.86)

금리	환율
2.34 (-0.01)	1038.90 (-1.50)

주문상품 야간에 픽업하세요

롯데마트는 21시 이전에 모바일 앱이나 PC로 주문한 상품을 21시부터 23시 사이에 수령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76개점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기업 90% "선호전공 있다"

기업 10곳 중 9곳은 신입 채용 시 선호하는 전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가 '신입 채용 시 선호하는 전공 계열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 '공학계열'(40.2%)을 꼽았다. 상경계열(13.9%), 자연계열(6.2%), 사회계열(4.6%), 인문계열(3.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0곳 중 8곳(79%)은 채용시 특정 전공자만을 선발하거나 우대하는 직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전공지식이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87.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국명기자

월급 빼고 다 올라

실질임금 마이너스 시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현실로 드러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한명당 실질임금이 월평균 277만26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만7830원보다 4813원(0.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3.4%에서 3분기 2.5%, 4분기 2.1%, 올해 1분기 1.6% 등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0.9%)은 0%대로 낮아진 상태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기업들이 성과급, 상여금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국명기자 lemiee@

금괴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값! 2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4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에서 LS-니꼬동제련 부스의 모델이 시가 6억원 짜리 중량 12.5kg의 금괴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콘텐츠 검색·게시글 확인 간편

다음 카페 모바일 웹 개편

다음 카페 모바일 웹이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카페 모바일 웹을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화면은 감성적 이미지의 화면 구성을 더해 이용 즐거움을 배가했다. 추천 콘텐츠도 전면 배치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매 시간 다음 카페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게시글도 볼 수 있다. 별도의 가입 과정 없어도 모바일 웹으로 접속할 때마다 다음에 개설된 1000만 개의 카페와 콘텐츠를 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개별 카페 이용도 편리해졌다. 게시물 목록을 하나씩 선택할 필요 없이 화면을 좌우로 밀어 넘기는 스와이프 기능으로 목록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읽기 위해 페이지를 이동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편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다. 게시글 본문과 댓글이 한 화면에 같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카페 검색 기능이 추가돼 원하는 게시글을 찾거나, 게시판에 적용된 말머리 기준으로 목록을 선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시글 작성 시 이미지와 본문의 편집, 작성한 글 수정도 문제 없다.

김희운 다음 카페기획팀장은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다음 카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연금복권520 제16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1조	503801
		4조	150521
2등	1억원	1등의 앞뒤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76827
4등	100만원	각조	47437
5등	2만원	각조	381
6등	2000원	각조	88 92
7등	1000원	각조	1 3

출처: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 문호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8년 5월 8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6

달러강세 타고 외화예금 유치 경쟁

은행들, 환차익 노린 소비자 겨냥 특별금리 신상품 공세

달러 강세 영향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외화예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대로 하락한 저금리 은행예금에 대한 대안이자 환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화예금 상품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큰 만큼, 꼼꼼하게 따져 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686억달러로, 전달보다 61억5000만 달러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주자외화예금 늘면 국내은행 입장에서는 외화 차입 의존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원화 외에 자금 조달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뜻한다.

통화별로 보면 외화예금 전체의 61.4%를 차지하는 달러화 예금(420억9000만 달러)은 전달보다 18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위안화 예금은 199억7000만 달러(29.1%) 규모로 37억8000만 달러 늘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주요 은행들은 외화예금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 계좌에서 여러 통화로 전환이 가능한 '외화 세연지업 예금'을 선보였다. 고객이 지정한 통화로 하나의 계좌에서 전환이 가능해 언제든지 환차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할 경우 직접 지정한 환율로 자동매매가 가능하다. 요건에 따라 금리우대도 적용된다. 인터넷뱅 적립시에는 환율우대 20%(자동이체시 40%), 통화간 전환시 환율우대 50%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의 '더 와이드 외화적금'은 미국 달러 뿐만 아니라 엔화, 유로화 등 8개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 혜택은 없지만 현재 원화 값이 강세를 보일 때 미리 가입해두면 추후 원화값이 하락할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환율에 도달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유학생 송금 지정거래를 신청하면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유학생이나 외화가 필요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환율 우대 혜택, 환율 연계 서비스 등을 위해 기획된 적립식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매달 이자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KB국민UP 외화정기예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매달 연 0.54%에서 연 1.34%까지 계단식으로 이자율을 높여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만기 전 2회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minj@metroseoul.co.kr

시중은행 대출금리 되레 올려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되레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외환·기업·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0.24% 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내렸음에도 이 효과가 실제 가계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를 보면 외환은행이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7월 연 3.35%에서 지난달 연 3.59%로 0.24%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7월 연3.31%에서 지난달 연 3.5%로 0.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3%에서 연3.41%로 0.11%포인트 인상했으며,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연 3.57%에서 연 3.59%로 올랐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시장금리의 하락을 상쇄하고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산금리 인상이 있다"며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도 가계 대출은 더욱 늘어 이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_ys0203@

'만원의 행복' 실천 신한은행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원을 기부해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2014 신한기적 만원나눔기부(만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나눔사업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 제공

'해외선물 빅매치' 실전투자대회

신한금융투자는 시카고선물거래소(CME) 탐방 기회를 포함, 총 1억원의 상금이 걸린 '2014 해외선물 빅매치(Big Match) 실전투자대회'를 오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주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한금융투자리그와 4개 증권사 통합리그로 나뉘어 열린다.

해외선물옵션 계좌를 보유하고 예탁자산 500만원 이상인 고객이라면 해외선물·FX마진 전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신한아이G X' 또는 선물옵션 전문가용 HTS인 '신한아이고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투자대상 종목은 CME에서 거래되는 지수·통화·금리선물과 상품선물(농산물·금·은) 등이다.

총 171명에게 1억여원 규모의 상금을 수여한다.

누적수익률 통합리그 1위에게는 두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1600만원 상당의 CME 탐방기회를 제공한다.

2~4위는 1인 CME 탐방기회(500만원 상당)를 각각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 리그 누적수익률 1~3위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이밖에 주간수익률과 거래량 연승 및 다승 주첨 등을 기준으로 160여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대회에 참여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도서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나 글로벌데스크(02-3772-4365)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hjk.m@

베트남에 학교 지어 줘

신한생명은 지난 23일 베트남 북부 타이응웬 성(省) 화퐁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Big Dream School)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 베트남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신한생명이 지난 1월 1억원을 기부해 초등학교 교실 건축을 시작했다.

같은 기간 신한생명 Big Dream 청년 해외봉사단 40여명은 베트남 초등학교를 방문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지원 활동도 실시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이상윤 신한생명 부사장, 성수열 코피온 사무총장, 심상준 한베문화교류센터 대표, 응웬반끼엠 타이응웬성 외무청 부청장, 편티쭉띠엔 화퐁초등학교 교장을 등 관계자와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석기자 khs@

삼성카드, 놀이공원 60% 할인

삼성카드는 가을 나들이 고객을 위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최고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놀이공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에버랜드를 방문할 고객은 본인의 자유이용권을 온라인으로 예약시 6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할인 쿠폰을 출력·제시한 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20%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월드 방문자에는 현장에서 삼성카드로 본인 자유이용권을 결제하면 1만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며,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40%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랜드에서도 본인 자유이용권 60% 현장 할인과 함께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30% 현장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놀이공원 서비스 제공 카드를 보유하고 이용 실적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롯데월드·서울랜드 이용시에는 삼성카드 3를 포함한 [illegible] 카드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놀이공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즐거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꾸준히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심상찮다

이틀 연속 52주 최저가…증권가 목표주가 잇따라 하향 조정

국내 증시를 이끄는 양대 주자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 증권가의 실적 등 우려 속에 최저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목표주가 하향도 잇따르고 있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이틀 연속 52주 최저가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115만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닷새간 7만원 넘게 빠졌다. 현대차 역시 장중 18만9000원으로 최저가를 경신한 뒤 전날보다 소폭 오른 19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경제의 양대 수출업종인 전기전자(IT)와 자동차의 대표 그룹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국내 증시의 쌍두마차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업황 둔화로 인한 실적 우려와 환율 시납 투자 효율성 문제 등이 쌍두마차의 주가를 후려쳤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증권사들의 3분기 영업익 전망치는 평균 6조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파르게 전망치를 하향조정 중이다.

지난 7월 말 8조27억원이었던 예상치가 8월 말 7조816억원으로 내려앉고서 이달 들어 6조원대로 밀렸다.

심지어 동양증권은 삼성전자의 IM(정보기술 모바일) 사업부의 부진으로 인해 3분기 영업익이 3조9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목표가 하향도 줄을 이었다.

동양증권(166만원→147만원)은 물론 교보증권 우리투자증권(160만원→150만원) 유진투자증권(180만원→160만원) 아이엠투자증권(135만원→128만원) 등이 목표가를 내렸다.

현대차도 경기 부진 우려에 권리를 앓긴 마찬가지다. 최근 불거진 투자 비효율성 문제 외에도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악화 우려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기관들은 최근 잇따라 24만8000원(23일 기준)으로 올 초보다 20% 가까이 가격을 낮췄다.

한편 전자군단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동안 두 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국내 증시가 균형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왔다.

/김현정기자 hjk nol@metroseoul.co.kr

하나SK·외환카드 합병 결의

자산 6조 규모 중위권 카드사 탄생할 듯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인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 카드사의 합병을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 결의로 이르면 올해 안에 카드자산 6조원, 시장점유율 8%의 중위권 카드사가 탄생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카드사 통합을 계기로 단기간 내 통합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2025년에는 업계 선도 카드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카드 통합추진단(이하 통추단)'을 출범시켰다.

통추단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중으로 양사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승인과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카드통합 시너지 창출의 핵심인 IT시스템 통합도 2015년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카드사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 효율화 740억과 수익창출 870억원 등 개별 성장 대비 약 1600억원의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사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달성 ▲모바일 기반 미래 결제시장 선점 ▲핵심 역량 강화 ▲비즈니스 혁신 ▲글로벌 결제시장 공략 등을 핵심 전략으로 소비자 보호와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어려운 카드시장 환경을 극복하고 선도 카드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카드사업을 적극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동양증권, 파생결합상품 4종 공모

동양증권은 오는 26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DLB 1종 ELB 1종 ELS 2종을 총 3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DLB 11호는 USDCNH(달러대비 역외 위안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1년짜리 상품이다. 만기시 USDCNH 환율이 최초기준환율 100% 이하이면 연 7.40%를, 100% 초과하면 원금을 지급한다.

'ELB 17호'는 만기 3년의 하이파이브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두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100%(4,8,12,16,20,24,28,32,36개월) 이상이면 연 5.01%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투자기간 동안의 주가하락 수준과 상관없이 3년 만기평가 시점에 현대차, 현대중공업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100% 이상이면 연 5.01%의 수익을 지급한다.

ELS 3202호는 만기 3년에 매 6개월마다 KOSPI200, HSCEI 두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연 6.9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투자기간 동안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0.70%(연6.90%)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ELS 3203호'는 만기 3년에 매 1개월마다 HSCEI, EUROSTOXX50 두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60% 이상이면 매달 0.62%(연7.44%)의 절대수익을 지급하는 쿠폰지급식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100만원 단위)으로 동양증권 전국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김주하 NH농협은행장(왼쪽)이 부 반 닌(Vu Van Ninh)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면담하며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김주하 농협은행장, 글로벌 경영 시동

동남아 시장 진출 위해 베트남 방문

NH농협은행은 24일 김주하 은행장이 원활한 동남아지역 진출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점 인가 신청서 제출을 계기로 베트남 당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진출 거래기업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현장경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김행장은 지난 23일 부 반 닌(Vu Van Ninh)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응우옌 푹 타인(Nguyen Phuoc Thanh)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베트남과 농협은행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하노이지점 인가 신청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MOU체결은행인 베트남 농업은행 회장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농업기관장과도 면담하며 베트남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행장은 또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공장 등을 방문하며 농업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무자본 M&A…부당이득 3년간 1300억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1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금액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부정거래 9건을 비롯해 시세조종 5건,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13건, 미공개정보이용 4건 등 총 31건이다.

조치 대상자 신분별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담배회사(5명), 증권방송 진행자(2명), 회계사(2명) 등의 순이었다.

M&A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려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및 경영진 구성내역, 주요 인수가액과 주가간 큰 격차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주식 인수자금의 원천과 담보계약 여부 ▲인수 이전인 (법인인 경우)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M&A 직전과 직후에는 신규 인 진출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김형석기자 khs840@

대신증권, ELS 9종 판매 내일 마감

대신증권은 KOSPI200, HSCEI, EURO STOXX50,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POSCO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9종의 상품을 오는 26일까지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Balan… 1 호는 KOSPI200과 HSCEI를 기초자산으로 조건 충족 시 연 7%의 수익을 지급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최소청약단위는 100만원이며 발행일은 오는 29일이다. 총 판매규모는 410억원이다.

상품가입은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현대차, 모터스포츠로 '고성능' 이미지 각인

WRC 재도전 첫 해에 우승…국내에서는 대중화 시도

척박한 국내 모터스포츠 환경에서 현대자동차의 활약이 돋보인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코리아 스피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월드랠리챔피언십(World Rally Championship, 이하 WRC)에 참가하며 모터스포츠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대차의 모터스포츠 참여는 1981년 마카오랠리에서 포니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엘란트라와 티뷰론으로 랠리대회에 참가했다. 본격적으로 모터스포츠에 뛰어든 것은 2000년부터다. 현대차 유럽법인이 2000~2003년 '베르나 랠리카'로 WRC에 도전, 4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 1973년 처음 시작된 WRC는 양산차를 경주용 차량으로 개조해 완성차업체 간 경쟁을 펼치는 대회로, F1과 함께 전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WRC는 5개 대륙 13개국에서 매년 열린다. 비포장도로와 아스팔트, 눈길 등 다양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특성상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연간 300억~900억원의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10년여 동안 WRC에서 철수했었다.

그러다가 정의선 부회장이 모터스포츠 참가를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2년 파리 모터쇼에서 i20 WRC 경주차를 전시하면서 WRC 복귀를 선언한 현대차는 독일 바이에른주에 현대모터스포츠법인을 설립했다. WRC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인 미셸 난단 등 책임자를 필두로 남양연구소 전담 엔지니어와 유럽 랠리 전문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동원해 극한의 주행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량을 개발했다.

현대차의 '현대 쉘 월드 랠리팀'은 2014년 1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2014 WRC의 1차 대회 '몬테카를로 랠리'에 출전, 랠리 챔피언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3월 멕시코 대회, 6월 폴란드 대회에서 연달아 시상대에 올랐다. 지난 8월 22~24일(현지시간) 열린 WRC 독일 랠리에서는 드라이버 부문 1·2위, 제조사 부문 1위에 오르며 출전 첫 해에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우승은 팀을 결성한지 18개월, 대회에 출전한지 미흡 번째에 이룬 성과다. 또 한국 메이커가 FIA 주관 세계 모터스포츠대회에서 거둔 첫 번째 우승이다.

현대차 i20 WRC 랠리카가 독일 랠리대회에서 질주하고 있다

미셸 난단(Michel Nandan) 현대차 월드랠리팀 총책임자는 "9번의 대회 참가 만에 1, 2위를 차지해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 모터스포츠 대중화 시도

현대차는 2003년 '클릭스피드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국내 모터스포츠 대중화에 앞장섰다. 새로운 선진국형 자동차 문화와 레저문화 창출을 위해 시작한 이 페스티벌은 2003년 4월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연간 총 7회의 대회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0년까지 이어진 클릭스피드 페스티벌은 2011년부터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가 차종을 확대했다. 지금은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과 벨로스터 터보 마스터즈, 아반떼·K3 챌린지 등의 종목을 갖춰 프로와 아마추어 레이서들이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MBC '무한도전'팀이 개막전에 참가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현대차는 본격적인 프로 레이서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2008년 CJ 슈퍼레이스에서 제네시스 쿠페 380GT 레이싱머신들이 참가하는 원메이크 레이스 '슈퍼3800 클래스'가 시작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현대차의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활동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양산차 기술향상에도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는 스쿠프-티뷰론-투스카니-제네시스 쿠페 등의 스포츠 쿠페 스포츠카를 개발하면서 고성능 자동차 기술을 상당부분 축적할 수 있었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2015년 데뷔가 예상되는 제네시스 쿠페 후속 모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성현기자 [email]@metroseoul.co.kr

슈피겐, 애니모드 제치고 상장

토종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최초

슈피겐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맞는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애니모드 역시 토종 기업이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이다.

애니모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조카인 김상용 대표가 이끄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미국 기업인 벨킨 타거스의 경우 한국에 지사를 운영하는 구조다.

글로벌 모바일 액세서리 전문기업 슈피겐코리아가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슈피겐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량 신주발행으로 총 185만주를 모집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요 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 후 27일과 28일 청약을 받아 오는 11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슈피겐코리아는 세계적인 하이엔드 모바일 패션브랜드 '슈피겐(Spigen)'으로 유명한 회사다.

2009년 설립된 슈피겐코리아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맞물려 성장 신화를 쓰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665억원에 영업이익은 159억원을 달성하는 등 최근 3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40%에 육박한다.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는 "슈피겐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면서 성장해온 글로벌 브랜드"라며 "이번 기업공개(IPO)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모바일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성훈기자 zen@

안보면 손해보험

홍지민

백주희

임기홍

정재헌

웃음 보장성 코미디

뮤지컬

완전보험주식회사

2014년 9월 11일 (목) ~ 11월 2일 (일) 대학로 뮤지컬 센터 공간 파꼴로

제작 ㈜샘컴퍼니 광뮤지컬컴퍼니 출연 임기홍 정상훈 박 훈 정재헌 김현진 홍지민 백주희 김효연

박 훈

김효연

정상훈

김현진

문의 02-6925-5600

★★★ REVIEW ★★★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렇게 정신 없이 웃어본 게 얼마 만이던가
오랜만에 접하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수작(秀作)
-조선일보

주말 드라마의 흥미진진함과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달달함이 공존
한참 웃다 보면 개그 프로그램 방청석에 앉아 있는 착각마저
-서울신문

익숙한 이야기를 신선한 소재로 풀어낸, 탄탄한 초연 뮤지컬
보험도 로맨틱할 수 있다!
-뉴시스

시회적 성공과 결혼이라는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일과 사랑의 문제를
경쾌하고 코믹하게 제시한다
코믹 소극장 뮤지컬의 전통을 새롭게 살려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 하다
-스포츠조선

코믹 멜로의 적절한 조화, 멀티맨의 활약 돋보이는
될성부른 소극장 뮤지컬의 탄생 완전보험주식회사
-메트로신문

모바일 뉴스·금융·쇼핑도 넘본다

Issue&View 올가을 카카오 야망의 계절

/정문경기자 jmoonk@metroseoul.co.kr

KAKAO

카카오, 전천후 사업확장 눈길… '갑질 논란' 우려도

올가을 카카오 야망의 계절이 펼쳐진다.

카카오가 다음달 1일 다음카카오 출범을 앞두고 굵직한 신규 서비스를 연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모바일 뉴스(카카오 토픽) 모바일 금융(카카오 페이) 모바일 쇼핑(카카오픽)을 선보였다. 앞서 모바일 SNS(카카오 스토리), 모바일 게임(카카오 게임하기), 모바일 선물 서비스(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포함하면 전 분야를 망라하는 수준이다.

2000년대 중반 네이버가 지식인 성공을 바탕으로 오픈 마켓 검색 광고 등으로 수익성을 높였듯이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발돋움한 카카오톡의 힘을 실어 전천후 사업 확장을 벌이고 있다.

본격적인 모바일 결제 시대를 연 카카오 페이는 카카오의 모바일 홈쇼핑 도전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선보인 카카오 페이는 출시 18일만인 지난 23일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카카오 페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모바일 홈쇼핑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22일 '카카오픽'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은 편의성과 결제 문제 때문에 모바일보다 PC에서 활성화되었다.

카카오픽의 가장 큰 특징은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적용한 친구찬스 기능이다. 친구들끼리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로 쇼핑 정보를 공유하면 가격 할인 폭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공동 구매로 가격을 낮추는 소셜 커머스와 비슷하다.

◆사업 확장 '갑의 횡포' 불식 관건

24일 공개된 모바일 뉴스 앱 '카카오 토픽'은 카카오의 포털 야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카카오 토픽은 이슈 검색에서 전파에 이용자 관심 콘텐츠를 따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110여 곳의 언론사 제휴를 통해 시간별 이슈 키워드와 인기 토픽도 제공한다.

하지만 이같은 카카오 사업 행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게임 업계와 모바일 선물 시장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에 입점하는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21%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경쟁사 '밴드 게임'의 수수료는 14%다. 배급사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사의 경우 카카오 게임하기와 배급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매출액의 절반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대형 배급사도 카카오 게임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 플랫폼이 아니면 모바일 게임 흥행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카카오 게임은 '갑 중의 갑'이 되어 버렸다.

지난 6월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기업들을 내보내고 자사가 직접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 업주 기업들을 내쫓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해명했지만 진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불거지는 카카오 잡음은 지난해 네이버 '갑의 논란'을 연상시킨다. 꾸준한 노력으로 1등 사업자에 오른 점은 축하할 일이지만 우월한 시장 위치를 이용해 영세 게임 개발사나 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겠다.

아이폰6·6플러스 마진 무려 72%

부품·조립 비용 200~263달러

'대박행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와 6플러스의 부품 조립 비용이 200~263 달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마진율은 69~72%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이는 시장조사기관 IHS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분해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16기가바이트(GB) 기준 아이폰6의 재료비는 196.10 달러, 조립 비용은 4 달러다. 원가가 200.10 달러인 셈이다.

16GB 기준 아이폰6 플러스의 재료비는 210.10 달러, 조립 비용은 4.50 달러다. 합계는 215.60 달러에 불과하다.

128GB 모델의 경우에도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는 아이폰6가 247.10 달러, 아이폰6 플러스가 262.60 달러로 나타났다.

아이폰 6와 6 플러스 가격이 649~949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마진율이 69~72%에 달한다.

이는 재작년에 나온 아이폰 5와 작년에 나온 아이폰 5s의 마진율이 약 69%로 추정됐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국헌기자 kmlee@

어린이 전용 'T키즈폰 준' 가입자 5만명 돌파 SK텔레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용 단말기 'T키즈폰 준'의 가입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11일 전용 요금제와 결합해 출시된 이 제품은 손목시계 모양의 형태의 착용형(웨어러블) 단말기다. /SKT 제공

건설기계·철강 활로 뚫는다

27일까지 킨텍스서 산업대전… 380여사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건설기계·철강업계와 함께 신제품을 전시하고 해외 구매사들과 수출 상담을 벌이는 '2014 대한민국 국가기반 산업대전'을 24~27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연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철강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올해 3회째로 '한국 국제건설기계전'과 '국제 철강·비철금속 산업전'을 통합한 것이다.

참가업체들은 글로벌 첨단 종합소재 공급자로서 발전하는 모습과 국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철강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철강·비철금속 제품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신규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한다.

철강업계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TCC동양, 일진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계와 고려아연, 풍산, LS NIKKO동제련, 대창 등 비철금속업계 등 18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스라엘수자원공사, 쿠웨이트 정유공사 등 해외 바이어 300여명을 초청해 수출구매 상담회를 개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전시기간 철강·비철 수출구매상담회, 철강산업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유통세미나, 자동차 관련세미나, 연료전지 세미나 등 10여개의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송근훈기자 rb kim@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MS CEO 만나

사물인터넷 분야 포괄적 협력 합의

LG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진이 만났다.

LG전자는 구본준(사진) LG전자 부회장이 방한 중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를 만나 사물인터넷(IoT)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구 부회장을 비롯해 안승권 최고기술책임자(CTO) 부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이 나델라 CEO와 김정우 한국MS 사장 등을 만나 사업현황과 전략 등을 공유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사는 최근 업계의 화두인 사물인터넷 분야에 관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의미있는 사업기회를 공동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향후 LG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 결합한 제품과 서비스로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고객은 물론 다양한 기업 간 거래(B2B)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LG전자와 MS는 ▲글로벌 '가상화 솔루션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 체결(2010년) ▲한국시장에서 LG전자의 3차원(3D) TV와 MS의 XBOX360 게임기의 결합 마케팅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2010년)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한편 나델라 CEO는 입국 첫날인 지난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만찬과 함께 주요 현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부문 사장 등이 배석했다.

/양성운기자 ysw@

"내 집은 내가 짓자"… 지역조합 아파트 급증

조합원이 땅 사들여 대출 이자 아껴 분양가 낮춰
토지 매입 실패하거나 사업 지연될 경우 부담 커져

한동안 공급이 주춤했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올 들어 급증 추세에 있다. 보통 분양아파트에 비해 PF 비계당 비용이 덜 들어 분양가가 낮고, 70% 이상 조합원 물량이라 일반분양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에 실패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까지 떼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모집을 앞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3개 단지 1만2000여 가구 규모다. 소규모 소형 단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의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물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생활권역에 사는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을 소유한 가구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시행사가 땅을 매입한 후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분양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산 뒤 건설사에게 짓게 하는 방식이다. 자기 땅에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최대 장점은 단연 저렴한 분양가다.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땅을 살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면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가격도 낮아지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시행사 PF대출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고, 조합원이 70% 이상 확보된 만큼 미분양 리스크가 적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건설사를 비롯해 법정관리 중인 월드건설·우림건설이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발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부지 전체를 시행사가 확보한 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전환한 사례까지 나왔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전부 모집돼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기 전까지 토지매입약정동의만 받아 놓는다.

그런데 서산 테크노밸리 지역주택조합과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100% 토지를 확보한 뒤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금 회수도 빠르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은 모든 사업의 책임이 조합에게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또 지역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는 달리 조합원 간 연고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결속력이 약하고, 내부 비리에도 취약하다.

조합원 모집 당시 약정한 분양가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서울 동작구의 A아파트는 애초 조합원 분양가가 2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4억원에 분양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땅 확보를 못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공신력 있는 부동산 신탁사가 자금관리를 맡았는지, 추가부담금이 생길 요인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사업시행사가 100% 토지를 확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서산 테크노밸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시도

삼성물산 "사랑의 집 지어 드려요" 삼성물산은 최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바주 서부 반둥지역 최사르칼랑 지역에서 신건하우스를 추가한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 제공

대림산업, 홍보관·전망대 홍보효과 톡톡

대림산업이 적극적인 고객 접점 마케팅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전부터 사업지 인근에 홍보관과 전망대를 마련, 구매력 있는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다.

24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10월 초 서울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분양을 앞두고 인근 메리어트파크 센터에 'SKY홍보관'을 오픈했다. 이 곳에서는 입주 후 누릴 수 있는 조망권에 대한 간접체험과 함께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1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이 중 1000명 정도가 VIP 관심고객으로 등록하고 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림산업은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에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홍보관과 현장전망대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바 있다.

부지 바로 옆에 전망대를 설치해 신설되는 광주역은 비롯해 주변 개발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 홍보관을 마련해 분당과 판교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을 유치했다. 덕분에 분양 2개월 만에 100%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손병희 아크로타워 스퀘어 분양소장은 "견본주택 모형도만 살펴보는 것보다 직접 조망권과 생활권을 보여주는 게 수요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광주에 이어 홍보관을 마련했다"며 "주말에는 고객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게 일일 정도로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오는 28일까지 SKY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전화·모바일 등을 통해 사전예약한 후 방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아크로타워 스퀘어 SKY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상품 관련 정보를 듣고 있다.

서울 3.3㎡당 천만원 미만 아파트 급증

경기침체 영향

경기침체로 매매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3.3㎡당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아파트 가구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3주차 시세 기준 서울에서 3.3㎡당 매매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수는 총 19만2023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3029가구의 16%에 해당한다.

5년 전인 2009년 9월 8만3590가구 보다 무려 10만8433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매매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3.3㎡당 평균 매매가가 1000만 원 초반대인 서울 외곽지역에서 매수자 부재로 약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수가 크게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지역을 대표하는 '노·도·강'에서 3.3㎡당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가 4만9664가구로 3.3㎡당 매매가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수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도봉구가 3만4775가구, 강북구는 8152가구로 이들 3개 구에서만 9만2581가구에 달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 가구수 중 4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지역은 주로 아파트 등 1980~1990년 대 입주된 중층과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 매수자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 가구수가 많았다.

이밖에 구로구 1만7504가구, 중랑구 1만2707가구, 금천구 1만1125가구, 성북구 1만768가구로 25개 자치구 중 6곳에서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 가구수가 1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단 한 곳도 없었고 송파구는 42가구, 서초구는 440가구가 해당됐다.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의 저렴한 가구수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1대책 영향으로 서울 전역으로 매매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난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선회하는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

다만 경기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주거 매수세 없이 매도호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3.3㎡당 매매가 1000만 원 미만 가구수 감소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학수기자

간편하게 빼자…'포터블 다이어트' 인기

자몽·마테차 등 손쉽게 섭취 가능한 제품 눈길

밤낮으로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한여름 뜨거웠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내년 여름 힘들기만한 '살과의 전쟁'을 벌이기 싫다면 가을과 겨울 적절한 체중 관리는 필수다. 이런 가운데 일상에서도 손쉽게 섭취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포터블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고 있다. 식·음료 업계에서도 이들을 겨냥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건강한 다이어트는 자연 식품을 이용한 것이다.

자몽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100g당 30kcal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일이다. 특히 쓴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몸 속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또 식이섬유소가 풍부하면서도 당도와 GI(Glycemic Index) 지수가 낮아 다이어트 중 비타민 C보급원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몽의 쌉싸름한 맛이 부담이라면 간편하게 주스로 마시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된다. 풀무원의 '아임리얼 자몽 주스'는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생자몽을 그날 바로 짠 100% 프리미엄 착즙주스로 신맛이나 쓴맛이 적으면서도 과일 자체의 상큼한 단맛이 그대로 전해진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아몬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덕분에 '아몬드 밀크'로 불리는 아몬드 음료는 이미 세계 최대 아몬드 수출국인 미국에서 우유의 대체 식품으로 두유의 점유율을 추격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연세우유의 '연세 리얼아몬드'는 캘리포니아산 생아몬드를 갈아 만든 아몬드 음료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없고, 우리 몸에 유용한 불포화지방산 오메가9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190㎖ 기준 80kcal로 우유나 두유보다 낮은 칼로리가 장점이다.

삼육식품의 '아라몬드'는 칼슘·비타민 E·단백질·섬유질 등의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어 10~30대 여성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마테차나 탄산수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마테차는 수입이 18배나 증가했으며, 국내 탄산수 시장은 5년 동안 약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카콜라의 '태양의 마테차'는 노화를 예방에 좋은 차로 각광받고 있다.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마테잎을 우려내 깔끔한 맛과 향으로 만들어져 칼로리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프리미엄 탄산수 '디아망'은 천연 미네랄이 다량 함유돼 있는 상쾌하고 깔끔한 맛의 프리미엄 탄산수이다. 당분, 카페인,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없어 소화 촉진과 숙취 해소, 피부 미용,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장병철기자 jame@metroseoul.co.kr

창업땐 '정보공개서'부터 확인

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 등록 취소 '주의'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정기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를 등록 취소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법적으로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등록 취소된 업체들은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 중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의 중요성과 꼼꼼한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재무 정보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영업활동 제한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이 수록돼 가맹본부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다.

창업자는 이 공개서를 토대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총자본과 총부채를 비교해 자본의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공식 비용 이외 추가 비용과 계약 사유 등도 상세히 따지고 영업활동은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품목 이 외에 가맹본부 자체 구입 가능 품목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문용필기자

식품업계, 주목받는 '뉴믹스(NEW-MIX)'

커피+치즈, 푸딩+과일잼 등 스페셜티 푸드 선봬

국내 식품업계가 다양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잡기 위해 이색 재료들을 조합한 이른바 이색 '뉴믹스(NEW-MIX)'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최근 치킨과 피자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메뉴인 '스페셜티 치킨'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특제 바비큐 소스로 양념한 부드러운 치킨 텐더 위에 피자 토핑으로 주로 사용되는 모짜렐라와 체다치즈, 베이컨칩을 올렸다. 여기에 파인애플 슬라이스, 할라피뇨, 스윗미니칠리까지 곁들여 치킨과 피자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다채롭고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커피와 치즈의 조화도 눈길을 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는 커피와 치즈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리스트레또 크림치즈 라떼'를 출시했다.

외식업체 스쿨푸드에서는 바나나와 식초를 조합해 건강한 다이어트 음료로 탄생시켰다. 바나나를 흑초에 절여 발효시킨 '바나나식초'는 바나나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CJ 제일제당은 우유와 달걀을 주재료로 한 부드럽게 녹는 맛이 특징인 '쁘띠첼 스윗푸딩'에 영국 전통 과일잼 '슈퍼잼'을 토핑으로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은영기자

롯데칠성, 광주U대회 공식 후원

롯데칠성음료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음료 부문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오피셜 파트너(Official Partner)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심판, 자원봉사자 등이 마실 게토레이, 아이시스 등 생수와 음료 일체를 후원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롯데칠성에 '공식 후원사' 명칭과 대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기장 내 전광판 A보드 광고권, 프로모션 권리 등을 제공한다.

롯데칠성음료는 후원사 권리를 활용해 칠성사이다를 비롯한 주요 제품에 유니버시아드 로고를 담은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제작하고, TV, 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170개국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지원기자

강강술래, 가을캠핑 간편먹거리 할인전

떡갈비·돈까스 2+1 덤 증정
곰탕·육포 등 40% 할인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본격적인 캠핑 시즌 가을을 맞아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할인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정직한 우떡갈비, 흑임자한돈너비아니, 통등심돈가스, 모짜렐라돈가스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더 주는 '2+1 덤 증정' 행사를 10월 3일까지 진행한다.

떡갈비는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제품이며, 너비아니는 국내산 돼지고기 70%와 아미노산과 비타민E가 풍부한 흑임자를 첨유했다. 돈까스는 국내산 돼지 통등심을 100% 사용했고, 모짜렐라돈까스의 경우 아이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자연산 치즈를 넣었다.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20인분)는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10봉)는 3만6000원에 40% 할인 판매된다.

이와 함께 전 매장에서는 10월 3일까지 기존 멤버십 회원이 구이메뉴(정식류, 해피아워 제외)를 시키면 10% 할인해준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가입하는 멤버십 회원에겐 포인트(1000점) 무료 적립 및 냉면상품권 1매를 증정한다. 와인(카르멘 롱텐 말롯) 1병을 시키면 결제 시 와인(카르멘 롱텐 카베르네쇼비뇽) 1병을 무료로 준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 티켓, 도서출판 길벗의 '공감하는 능력'과 '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감' 도서를 선물로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pjw@

올 가을 '즐거운 달리기'에 빠지다

야간 레이스·장애물 달리기 등 이색 러닝대회 잇따라

그저 앞만 보며 혼자 달리는 고독한 마라톤은 이제 그만. 올 가을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즐겁게 땀방울을 흘릴 수 있는 이색 마라톤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최근 더운 낮을 피해 밤에 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야간 마라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평소 나이트 러닝을 즐기는 직장인 김민준(28·남)씨는 "시원한 밤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 달 열릴 '에너자이저 나이트레이스'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달리는 국내 최대 야간 마라톤 '에너자이저 나이트레이스'는 10월 11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에서는 긍정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에너자이저 건전지를 상징하는 벽만둥이 인형과 헬륨 풍선을 착용한 스태프들이 축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출발 전엔 DJ 자동차 퍼레이드를 비롯해 장미여관의 공연이 흥을 돋운다.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마음을 실천에 옮겨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폐건전지 쓰레기 수거, 헌옷 기부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 스탬프를 모두 모은 참가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한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개인번호 대신 자신이 원하는 긍정메시지를 배에 붙이고 달릴 수 있어 더욱 재미나다.

도심 속 장애물 달리기 '어반애슬론'도 국내에 상륙했다.

200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어반애슬론' 도심에서 진행되는 장애물 달리기 대회로 11월 8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홍제천 일대 8km에 설치된 8개의 복합 장애물 코스에 점프, 포복, 오르기, 힘쓰기 등 달리기뿐 아니라 근력운동을 결합해 도전해 나가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레이스로 스포츠와 재미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신나는 음악이 함께 하는 애프터 뮤직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마라톤 'EDM 5K RUN'이 열렸다.

EDM 5K RUN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펀 런(Fun Run)'의 일종으로 달리기와 함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레이스다. 코스 곳곳에는 바운스, 딥하우스, 테크 하우스 등 음악 스테이션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선선한 저녁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나이트 런이어서 조명과 비트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대회 관계자는 전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남성 액세서리 리더 될것"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개최

액세서리 브랜드 몽블랑코리아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4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시상식'에서 한국 남성 액세서리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몽블랑 코리아 실뱅 코스토프 지사장은 "포라상타연 럭셔리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남성 액세서리"라며 "몽블랑은 만년필 등 필기구와 가죽 제품, 시계 등을 중심으로 이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하는 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은 매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문화예술의 번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수상했다.

박삼구 회장은 "오늘 수상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모아져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몽블랑은 특별 제작한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 상 펜'도 공개했다. 올해는 헨리 E. 스타인웨이를 기리며 88개의 피아노 건반을 모티브로 한 '헨리 E. 스타인웨이 88 에디션'을 선보였다. 전 세계 88개 한정 제작됐으며, 뉴욕 스타인웨이홀 건축물을 형상화 한 만년필 투명과 0.015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클립이 특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DY&J, 노화 방지 화장품

DY&J는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비오드리 플랜트 스템셀 세트(Bi-Odery Plant Stem Cell Set)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식약처 인증 주름 개선과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천연물 특허 2종의 성분이 들어 있어 자극 없이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한솔생명과학 기업부설연구소의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플랜트 스템셀 컴플렉스(Plant Stem Cell Complex)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식물 자체에 있는 생명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해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고, 매일 관리 받는 것처럼 탄력있고 윤택한 피부로 가꿔준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김수정기자

Plant Stem Cell set +
Mi-Roll

화려했던 댄싱 카니발 성공작 평가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강원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국내 최고 거리 퍼레이드 축제 '2014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1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길, 사람, 소통'을 주제로 열린 축제에서는 메인 행사 '댄싱카니발' 외에도 ▲군악의 날 ▲클래식의 날 ▲합창의 날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또 그린셰어프 놀이터와 프리마켓, 캠핑 페스티벌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있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댄싱 카니발에는 ▲해외팀 600명 ▲군장병팀 1000명 ▲국내팀 8421명 등 총 132개 팀 1만21명이 참여해 원주시내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퍼레이드를 통해 BEST 15에 오른 15개 팀은 폐막식인 21일 원주 따뚜 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최종 결선 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다이내믹 등 4개 부분의 대상을 포함해 총 4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광의 다이내믹 부문 대상은 화려한 안무와 LED 의상을 제작해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한라대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재어리 담을 보여준 '원주 응원 연합 아라리' 팀이 수상했다.

한편 페스티벌 기간 동안 원주시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6만 명 증가한 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원주=황기자 hmj308@

'자궁근종', 초음파로 찾는다

40대가 가장 많아… 정기적인 검진 중요

'자궁근종'은 여성 질환 중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40대 환자가 가장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도 진료인원 28만5544명 가운데 40대는 13만6687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했다.

40대에 자궁근종이 빈번한 이유는 다른 종양과 형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궁근종은 자궁근층에서 근육 세포들로 만들어지는 종양으로 암이나 다른 종양에 비해 형성 과정이 비교적 느리다. 초경 이후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 서서히 자라며 40대가 지나면서 초음파 검사 등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궁근종 진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자궁 초음파 검사다. 크기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자궁근종 진단에는 무리가 없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 초음파 검사 시 변성이나 악성이 의심될 때는 2차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자궁근종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종양이 발생한다는 보고만 있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치료를 위한 시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 하이푸(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 종양 치료술로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해 절개 없이 자궁근종만을 소멸시키는 최신 치료법이다. 초음파를 칼처럼 사용해 출혈 없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며 절개나 출혈이 없어 시술 후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

김태희 청담산부인과외과 원장은 "최근 20~30대 환자도 늘고 있는 자궁근종은 크기와 개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초음파 검사만으로 1㎝ 미만의 자궁근종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낭만 가을 로맨틱 웨딩!

특급호텔 페어 이어져

특급호텔들이 가을을 맞아 웨딩페어를 준비했다.

먼저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25일 오후 7시 호텔 샴페인 홀에서 '포즈와 함께하는 가을밤의 로맨틱 웨딩쇼'를 선보인다. 웨딩 드레스·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톱 모즈가 예비 부부만을 위한 환상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호텔에서 예식을 올릴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품격의 음식이 제공되며 프리미어 이그제큐티브 룸과 에구스 리무진 등이 서비스된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28일 '스윗 시즌 웨딩 페어'를 마련했다. 페어는 계절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자연 친화적인 콘셉트로 구성되며 페어에 참여하는 웨딩 관련 업체는 부스를 설치해 고객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결혼 준비를 위한 웨딩 클래스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축제와 휴식을 한번에…"

에버랜드 핼러윈 축제·신라스테이 역삼 오픈 기념 스페셜 패키지 선봬

신라스테이 동탄이 에버랜드 핼러윈 축제와 달콤한 마카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달콤 오싹 핼러윈 패키지'를 선보인다.

다음 달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는 핼러윈 축제가 한창인 에버랜드에서 오싹하면서도 재미있는 할로윈과 함께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다.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그리고 마카롱 5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패키지 가격은 15만9000원이다. 특히 카페 아티제에서 제공되는 '피에르 드 파리' 마카롱은 프랑스 장인이 만든 프리미엄 마카롱으로 화려한 색과 깊이 있는 맛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는 10월 1일 문을 여는 신라스테이 역삼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신라스테이 동탄에서 12월까지 '오픈 이플리 스페셜 패키지(Special Package)'를 준비했다.

이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에서의 1박에 특별한 오프닝 선물이 증정되는 패키지로 17만원 상당의 이스티로더 미니 6종 세트 파우치 등을 14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선착순 50명만 패키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02)2230-30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수능 밤샘 공부? 건강이 먼저죠"

앉아있는 시간 많아 치질 등 조심… 필요하면 건기식 섭취를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도 남지 않았다. 이맘때 수험생들은 긴장감과 약해진 체력으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시험 당일 대박을 위해서는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

◆환절기 체력 유지 신경 써야

우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치질 등 항문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치질은 항문 질환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항문 주위에 혹이 만져지거나 변을 볼 때 출혈이 있다면 치핵 또는 치열을 의심해야 한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혈액순환을 돕는 스트레칭이다. 1시간에 1번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 민상진 예디앙병원 원장은 "치질이 발생하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자동치험기를 이용해 출혈이 적고 통증이 적은 수술법도 등장한 만큼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학습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패스트푸드 등으로 식사를 때우거나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만성 변비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채소와 잡곡밥 등 섬유질이 풍부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난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한국코와의 더기드코매칭 장정' 과 같은 약물을 복용해 컨디션을 조절해야 한다.

아울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환절기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다. 평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수면도 필요하다.

또 피로도가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은 신체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면서 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항산화SOD 제품인 쎄스팜의 '홍앤젤'이나 면역력 강화 성분을 함유한 내츄럴엔도텍의 '면역연금쿠칸'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제보자'로 돌아온 배우 **유연석**

소신 있고 당당한 캐릭터에 매료
롤모델 박해일과의 연기 기억에 남아
"성원에 감사 변하지 않고 연기할 것"

"스타? 초심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배우 유연석(30)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된다. '올드보이'의 유지태 아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도전을 찾아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넘나들었다. '혜화, 동'의 유약한 청춘, '건축학개론'의 잘 나가는 강남 선배, 그리고 '늑대소년'과 '괴물을 삼킨 아이'의 악역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온 그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를 만나 스타가 될 기회를 거머쥐었다.

다음달 2일 개봉하는 '제보자'(감독 임순례)는 '응답하라 1994'에서와는 또 다른 유연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는 지난 2006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기세포 복제 스캔들을 다뤘다. 유연석은 온 국민이 열광하는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제보자 심민호를 연기했다. 어린 딸을 두고 있는 아빠로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유연석이 이전까지 보여준 적 없는 당당한 캐릭터다.

"칠봉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일부러 이미지를 탈피해야겠다는 강박은 없었어요.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지 이미지를 고수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심민호에게 끌렸던 점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소신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우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연기 인생에서 처음 맡은 아빠 역할이 좀 부담이 됐다. 그러나 제목처럼 제보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아빠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덜어낼 수 있었다. 심민호를 연기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심민호가 제보를 믿지 않으려는 윤민철(박해일)을 향해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신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유연석에게도 이번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심민호의 소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그가 배우로서 롤모델로 여겨온 박해일과 가장 격한 감정을 주고받았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대본 리딩 때부터 그 신이 좋았어요. 박해일 선배님과 호흡을 주고받는 것도 좋았고요. 박해일 선배님이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선배님을 롤 모델이라는 생각보다 영화에서 맡은 역할 자체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응답하라 1994'를 기점으로 유연석은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자'를 마친 뒤 '은밀한 유혹'과 '상의원'(가제)을 촬영했고 현재는 '그날의 분위기'의 크랭크인을 기다리고 있다. 스릴러, 사극, 멜로 등 각기 다른 장르라는 점에서 유연석의 또 다른 변신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들이다.

지난 19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tvN '꽃보다 청춘-라오스' 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연석은 "온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됐다. 안연석(유연석의 본명)으로 편하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모습 자체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첫 단독 팬 미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유연석은 "작품 선택 기준과 작품에 임하는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중해졌다"고 말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과 변신이다. '응답하라 1994'에 이어 '제보자'를 선택한 것처럼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전을 찾아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은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제게도 의미가 큰 한 해였어요. 조금은 욕심을 내서 쉼 없이 달리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후회는 없어요. 배우로서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행보를 이어갈 생각도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해온 것이 틀리지 않다고 믿으니까요. 특별한 목표를 갖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것, 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정지훈·정수정

KBS2 '아이언맨' 이동욱·신세경

MBC '내 생애 봄날' 감우성·최수영

수목드라마 '괜찮아 힐링이야'

'내겐…' '아이언맨' '내 생애 봄날' 순수한 사랑·감성 자극

힐링, 지상파 수목드라마의 키워드다. 지난 11일 SBS '괜찮아 사랑이야'가 마음 속 상처를 숨기고 사는 현대인을 사랑으로 위로하며 종영했다. 바통을 이어 새롭게 정비된 수목극 역시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KBS2 '아이언맨', MBC '내 생애 봄날'은 순수한 사랑을 담아 시청자 감성을 자극한다.

'내겐…'은 천재 작곡가 윤세나(정수정)와 최고 프로듀서 이현욱(정지훈)의 음악과 사랑을 그린다. 윤세나는 고달픈 생활에도 음악을 향한 열정만은 지키며 사는 씩씩한 소녀다. 지난 방송에서 이현욱은 옛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은둔했지만 우연히 마주친 윤세나가 죽은 애인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윤세나를 돕기 위해 다시 세상에 나왔다. 발랄한 윤세나가 이현욱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전개에 기대감을 높였다.

정지훈은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윤세나를 보호하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역할을 소개하며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아이언맨'은 분노가 칼이 돼 몸 밖으로 나오는 주홍빈(이동욱)과 도덕 교과서처럼 순수한 손세동(신세경)의 사랑을 담았다. 주홍빈은 옛 연인과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독설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마음 속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타지적이고 과장된 캐릭터의 행동에도 시청자는 '안쓰럽다'는 반응이다. 손세동은 고운 심성이 묻어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주홍빈은 물론 시청자도 위로하는 연고로 활약 중이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주홍빈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시청자들 역시 마음이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 생애 봄날'은 착한 드라마의 원조인 '고맙습니다'(2007)를 연출한 이재동 PD 특유의 인간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장기 이식을 통해 새 심장을 얻은 여자와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남편이 만나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다.

아내를 잃은 후 마음의 문을 닫은 강동하(감우성)와 심장 이식을 받은 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봄이(최수영)와의 멜로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고 심장이 인지 반응에 흔들린 장면이 연출될 때는 숨 죽이게 된다. 전체적으로 카메라에 담긴 색감과 대사, 음악이 첫사랑 옛사랑을 추억하게 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전효진 기자

제이슨 므라즈 11월 내한공연

대전·대구·서울서 총 4회 개최

팝 가수 제이슨 므라즈(사진)가 오는 11월 한국을 찾는다.

이번 내한 공연은 지난 7월 공개된 제이슨 므라즈의 정규 5집 '예스!' 발매를 기념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이다. 11월 21일 대전 무역전시관을 시작으로 23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 24~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시작된 제이슨 므라즈의 이번 월드 투어는 어쿠스틱 공연으로 팬들과 친밀한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제이슨 므라즈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제이슨 므라즈는 이번 공연을 위해 최적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관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그의 오랜 음악적 동료이자 '예스!' 앨범 작업에 참여한 여성 포크 록 밴드 레이닝 제인이 함께해 풍성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데뷔한 제이슨 므라즈는 팝·포크·록·재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3집 수록곡 '럭키'와 '메이크 잇 마인'으로 2010년 그래미 시상식 2관왕을 차지했으며 '아임 유어스'로 빌보드 싱글 차트에 76주 동안 머물며 인기를 모았다. 그의 3집 앨범은 국내에서도 인기였고 국내 팝 시장에선 드문 다이아몬드 레코드 기록을 세웠다. 또 2012년 발매된 4집 '러브 이즈 어 포 레터 워드'는 지난 6년 동안 국내에서 발매된 해외 아티스트 앨범 중 첫 주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김지민 기자

박정현·다이나믹 듀오 한 무대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 '그 해 겨울' 열어

가수 박정현(사진 위)과 다이나믹 듀오(아래)가 오는 1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공연 '그 해 겨울'을 연다.

'그 해 겨울'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겨울 시즌 콘서트로 다이나믹 듀오에 앞서 성시경, 김범수, YB 등이 박정현과 함께 주인공으로 나선 바 있다.

박정현이 힙합 뮤지션과 함께 '그 해 겨울' 공연을 이끄는 것은 처음이다. R&B 발라드 장르의 박정현과 힙합 장르의 다이나믹 듀오는 색다른 조합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계획이다.

한편 박정현은 지난 22일 다음 달 발매 예정인 새 앨범 '싱크로퓨전 리나 박+브랜뉴뮤직'의 수록곡 '잠깐 만나'를 공개하고 활발한 음악 활동을 예고했다.

/정지연 기자

박효신, 마마스건 공연에 게스트로

리더 플렛츠와 우정

가수 박효신(사진 위)이 26일 서울 광진구 유니클로 악스홀에서 열리는 영국 출신 5인조 밴드 마마스건(아래) 내한 공연에 단독 게스트로 참여한다.

박효신은 새 앨범 준비와 뮤지컬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마마스건의 내한 소식에 기꺼이 게스트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효신이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된 배경엔 마마스건 리더 앤디 플렛츠와의 우정이 있었다.

한국 가수 [illegible] 작곡하는 등 국내 뮤지션과 협업을 해 온 앤디 플렛츠는 박효신과 수년간 음악적 교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박효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마마스건은 세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세션 연주자, 프로듀서, 작곡가, 음대 교수가 모인 팀이다. 2009년 소울·펑크를 기반으로 한 재즈·팝·록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아낸 첫 번째 음반 '루츠 투 리치스'로 데뷔했다. 2011년엔 2집 '더 라이프 앤드 소울'을 발표, 애시드재즈와 레트로소울 장르의 최종 진화형 밴드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마마스건은 이번 내한공연에서 정규 3집 '천 로빈'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9월 25일
넵튠 AK 플라자 수원점이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넵튠 AK 플라자 수원점
리뉴얼 오픈

NEPTUNE

한예리 '한국무용의 美' 전파

'설렘 아프더라도' 공연 영화인들 극찬

배우 한예리(사진 가운데)가 무용수로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한예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동숭동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정신혜 무용단이 '2014 정신혜 무용단 창작춤 레퍼토리(-설렘 아프더라도)'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랐다.

'설렘 아프더라도'는 황순원 작가의 동명 소설을 모티브로 해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죽음과 이별의 아픔들을 하나의 테마로 구성한 작품 '소나기', 그리고 굿의 현대적 해석을 담은 작품 '굿, Good'을 아픔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었다.

한예리는 '소나기'에서는 사랑에 빠진 순수한 모습부터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까지 다양한 감정 연기로 녹여내면서 동시에 무용수로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했다. 이어진 '굿, Good'에서는 붉은 한복을 입고 등장해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무용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공연에는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김종관 감독은 "몸의 아름다움과 자유를 보고 간다"고 극찬했고, 임순례 감독은 "연기보다 멋있는 춤을 추다니 괴물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태는 "무대 위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며 "무대와 스크린 속의 한예리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공연을 마친 뒤 한예리는 "무용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관객들이 충분히 느낀 것 같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아해줘서 감사했다"며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정신혜 무용단과 스태프들, 정신혜 교수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의 조진웅, 장진 감독, 김성균(왼쪽부터). /손진영기자 son@

"따뜻한 휴먼 코미디"

장진 감독 "오랜만의 코미디 영화 즐겁게 작업"

조진웅과 김성균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이하 '범죄와의 전쟁')다. 이 영화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두 배우는 그 동안 주로 센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왔다. '박수건달'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군도: 민란의 시대'에는 함께 출연해 남다른 인연도 이어왔다.

강한 영화로 각인된 이들 배우가 올 가을 코미디로 극장가를 찾는다. 다음달 23일 개봉 예정인 장진 감독의 신작 '우리는 형제입니다'를 통해서다. 조진웅, 김성균은 이 작품에서 30년 만에 목사와 박수무당으로 재회하게 된 형제 상연(조진웅)과 하연(김성균)을 연기했다.

24일 오전 11시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김성균은 "시나리오가 독특했다"며 "그 동안 작품에서 얼굴에 피를 묻히고 위험한 물건을 다루다보니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휴먼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작품을 만나 감사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코미디와 희극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웃음과 코미디라는 장르에는 굉장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장진 감독님의 팬이기도 해서 완성될 영화가 기대되고 떨린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첫 만남의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조진웅은 "윤종빈 감독이 김성균에 대해 '작업니다'라고 소개했다. 대본 리딩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나보다 선배인 줄 알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친형제 같은 우정도 나눴다. "김성균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다. 아주 좋은 동생이 생겨서 좋았다"고 밝힌 조진웅은 "형으로서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나를 많이 배려해줬다.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성균도 "형이 촬영을 일찍 마치면 근처 중국집이나 국밥집에서 기다려주고는 했다. 친형 같았다"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장진 감독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코미디다. 장 감독은 "예산이나 스케일에 상관없이 뭔가 받기 가장 좋은 장르가 코미디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즐거운 터치로 만들 수 있는 코미디를 오랜만에 해서 즐거웠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rsnow@metroseoul.co.kr

열혈 PD 박해일, 속물 캐릭터 변신?

'나의 독재자'서 90년대 백수건달 연기

'제보자'의 열혈 방송국 PD로 돌아온 배우 박해일이 영화 '나의 독재자'(감독 이해준)를 통해 속물근성 가득한 캐릭터로 변신한다.

'나의 독재자'는 첫 남북정상회담 리허설을 위해 김일성의 대역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한 작품이다. 자신을 김일성이라 굳게 믿는 남자와 그런 아버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해일은 극중 백수건달 태식 역을 맡았다. 어린 시절 우상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짐이 돼버린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애증을 섬세한 감정 연기로 표현해냈다. 또한 90년대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이해준 감독은 "대본 작업 당시 태식의 대사는 박해일의 연기를 염두에 두고 썼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보여줬다.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해일은 생각이 깊고 단단한 배우다. 현장에서 늘 디테일을 놓지 않고 생각하는 모습이 감독을 긴장하게 할 정도였다"며 만족감도 드러냈다.

이번 작품은 충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인 설경구와 박해일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독재자'는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천우희·도경수·지우 '카트'의 젊은 피

선배 배우들과 연기 호흡 '맹활약'

배우 천우희(사진 왼쪽), 지우(가운데) 그리고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오른쪽)가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에서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젊은 피로 맹활약을 펼쳤다.

'카트'는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천우희, 지우, 도경수는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등 연기파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영화 '한공주'로 국내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천우희는 극중 88만원 세대를 대변하는 당돌한 계약직 계산원 미진 역을 맡았다. 그 동안 고등학생 역할을 주로 연기했던 천우희는 "드디어 내 또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경수는 극중 염정아가 맡은 선희의 아들 태영을 연기했다. 10대의 반항심 가득한 고등학생으로 섬세한 감정 묘사를 선보였다. 그는 "대선배님들이라 긴장했는데 다들 응원해주셔서 많이 배우며 촬영했다. 특히 염정아 선배님은 진짜 엄마처럼 항상 편하게 대해줘서 긴장을 풀 수 있었다"고 첫 스크린 데뷔 소감을 밝혔다.

영화 '전설의 주먹',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눈도장을 찍은 지우는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언제나 밝고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경을 연기했다. 태영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든든한 친구로 극에 활기를 더했다.

'카트'는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34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10월 한양 선비의 회식음식, 연포탕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연포탕은 산 낙지를 맑은 장국에 채소와 함께 넣어 익혀 먹는다. 양념을 하지 않아 낙지의 담백한 맛과 살짝 데친 낙지의 쫄깃쫄깃한 식감, 낙지국물이 우러난 시원한 육수가 일품이다.

요즘은 연포탕하면 으레 낙지를 넣어 끓인 낙지탕을 떠올리지만 원래는 낙지와 아무 관련 없는 음식이었다. 맑은 장국에 두부와 무, 소고기, 북어, 다시마 등을 넣고 끓인 두부장국이기 때문이다.

연포탕은 연포(軟泡)로 끓인 국(湯)으로 옛날에는 두부를 포(泡)라고 했다. 정조 때의 실학자 정약용이 어원사전인 아언각비(雅言覺非)에 연포의 어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부를 한글이라고 생각해 따로 한자로 포(泡)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포는 부드러운 두부라는 뜻이고 연포탕은 그 두부로 끓인 국이다.

조선의 연포탕은 가늘게 자른 두부를 꼬챙이에 꿰어 번철에 지진 후 여기에 닭고기 국물을 부어 끓인다. 여씨 보면 지금의 어묵탕과 비슷한데 조선시대 실학서인 산림경제에는 여기에 굴을 넣고 또 다진 생강을 국물에 타서 먹으면 맛이 보드랍고 월등하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낙지를 넣기 시작했고, 낙지 연포탕이 유명해지면서 연포탕하면 두부장국 대신 으레 낙지 연포탕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연포탕은 날씨가 쌀쌀해지면 한양 선비의 별미로 인기를 끌었던 음식이다. 최남선은 조선상식에서 계절의 별미로 전골, 만두, 쑥국, 연포탕을 꼽았는데 우리나라 풍속을 적은 동국세시기에도 음력 10월 음식으로 연포탕을 꼽았다.

한양 선비들은 10월이면 먹자계를 조직해 회식을 즐겼는데 요즘 직장인들이 퇴근 후 고기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처럼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난로회(煖爐會), 포장마차에서 어묵탕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이 꼬치에 꽂은 두부를 닭고기 국물에 끓여 먹는 연포회(軟泡會)도 인기였다. 며칠만 지나면 벌써 10월이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됐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saju[illegible].com

유학 계획 시간강사인데 잘될까요
교육이 천직, 철저한 준비 필요해요

Q hmin 남자 83년 7월 24일 0시

선생님 저의 친구의 아들에 대하여 상담을 올립니다. 제가 인생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 되어서 대신 여쭙습니다. 올해 32세이며 지금은 조그마한 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했으며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 했으나 임용고시에 몇 번 낙방을 한 후 현재와 같은 처지로는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외국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친척이 살고 있으며 일본에는 이부가 살고 있어서 숙식은 해결이 됩니다.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야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까요?

A 사주용어로는 편관용인격(偏官用印格) 격이 편관이고 용신이 비견으로 볼 수 있고 뿌리가 금수(金水)로 이국으로 유학을 가야 될 명(命)의 태어난 생월 미토(未土)가 자기에게 유리한 계절이므로 주변의 덕을 받습니다. 직업성은 식상(食傷)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교육직이 천직이 될 것이며 일지(日支) 생일자기 공망(空亡)으로 남을 도와서 참모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팔통 [illegible] 사주 이달 자가 음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음의 성질이 많아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며 결단력이 부족하나 섬세함이 있고 온화하며 자상한 마음의 소유자인데 결단력이 부족해 큰일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조치할 [illegible] 합니다. 태어난 생일에 백호(白虎)로 처궁은 불미한 편으로 결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니 관대지(冠帶地)로 식신(食神)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라 인성(印星) 나를 생해주는 오행에 암록(暗祿) 숨어 있는 녹봉이 있어서 어려울 때 주변의 원조가 따르고 좋아하는 유학을 생애 편안해 집니다. 유학조건에 대해 연구해 본다면 대학마다 요구하는 토플점수 커트라인이 있으며 학점을 요구하는 곳도 있겠지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토플점수등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최소한의 영어 학점만으로도 대학에 입학하여 테스트를 통하여 일정기간 영어 연수 과정을 거쳐 본과로 승급하여 정규 유학으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해야 하니 학교선택을 잘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을 이룰 수 가 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꾀도 정진하는 근기의 집념을 보이면서도 발전이 늦어지는 자신의 운세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는 일종의 오기를 품을 수도 있으니 유학의 선택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날씨

9/25 木 일출시각 06:22 일몰시각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2.co.kr

지역	기온
서울	16/26
청주	16/26
대전	16/28
전주	16/27
광주	17/27
제주	20/25
강릉	17/23
울릉도	17/21
대구	15/27
포항	16/24
울산	18/26
부산	20/26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1					7	
	4	7					5	9
				2		8		
			7				9	
7			4	8	2			5
	3				5			
		2		4				
5	9					3	6	
	1					5		2

5				9	6	7		
3	9		1					
	7	8						4
2				4	7			
		9				8		
			8	3				9
9						1	8	
					1		9	2
		7	5	2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시 스도쿠 프리미어
(저자 고든 프렛크 펭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9월 25일(음 8월 2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말려서 낭보가 날아온다. 60년생 대야놀서 확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72년생 바르게 정직해야 겨우 본전 한다. 84년생 큰 일 많아도 참아라.

소: 49년생 과유불급이란 말 명심~ 61년생 오늘 할 일 미루면 후회한다. 73년생 스트레스 줄이는데 신경 써라. 85년생 허울뿐인 명분에 갇히면 옴짝달싹도 못한다.

호랑이: 50년생 공들인 꿈은 성사된다. 62년생 어른으로서 탈각 유지에 신경 써라. 74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6년생 연인의 부정에 방관하면 두고두고 후회~

토끼: 51년생 집안일은 짜증이 나도 참아라. 63년생 공짜인 사람은 마음의 골 만다. 75년생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말라. 87년생 실속보단 명예를 선택하는 게 이롭다.

용: 52년생 어른노릇하게 되어 기쁘다. 64년생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 76년생 사다리가 될 귀인을 만난다. 88년생 곧 기회가 오니 마지막 카드 버리지 말라.

뱀: 53년생 집안일은 솔선수범할 것. 65년생 생각만 해도 뿌듯한 경사 생긴다. 77년생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드러내지 말라. 89년생 꿈수 부리면 얼굴 못 들고 다닌다.

말: 42년생 상대 존중해야 대접받는다. 54년생 계획은 차질 빚으니 대비하라. 66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78년생 꾀 있는 상사와 맞서면 손해~

양: 43년생 잔소리는 귀담아 들어라. 55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 67년생 중요한 정보 보안에 신경 써라. 79년생 연락이 끊던 벗이 불쑥 찾아온다.

원숭이: 44년생 끊었던 일은 통화구 찾는다. 56년생 떠나려는 사람에 매달리지 말라. 68년생 귀한 사람 이웃 나갈 일이 생긴다. 80년생 신통찮은 일은 빨리 포기할 것.

닭: 45년생 가볍게 자신 클도록 소경 써라. 57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 느낀다. 69년생 못 마땅해도 간지 집에 한눈 팔지 마라. 81년생 싸움 말리다 봉변하는 격이다.

개: 46년생 지극정성이면 뭐든 바꿀 수 있다. 58년생 돈 거래는 가능한 피하라. 70년생 소극적 직장인은 엉뚱한 오해 산다. 82년생 어설픈 마음은 의심 부르니 조심~

돼지: 47년생 외소문은 멀지 말라. 59년생 하고 싶은 소원거리가 생겨 즐겁다. 71년생 위아래 너무 따지면 왕따 자초하는 격~ 83년생 서두르면 헛발질한다.

한국 야구, 대만잡고 조1위 확정

박태환 계영 400m 동메달

박태환(인천시청·사진)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계영 400m에서 이번 대회 네 번째 동메달을 따냈다.

박태환은 24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결승 경기에서 김성겸(국군체육부대), 양준혁(서울대), 남기웅(동아대)에 이어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영자로 출전해 동메달을 합작했다.

한국은 3분18초44의 한국 신기록으로 중국(3분13초47), 일본(3분14초38)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대회부터 3회 연속 동메달을 대표팀 동료와 함께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유형 200m·400m, 계영 800m에 이어 동메달만 4개를 챙겼다.

박태환이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개인 통산 메달 수는 총 18개(금 6, 은3, 동9)가 됐다. 앞으로 하나의 메달만 더 보태면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가진 사격의 박병택(19개 금 5, 은 8, 동 6)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박태환은 25일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예선리그 2차전에서 대만에 10-0, 8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태국과의 1차전에서 15-0, 5회 콜드게임으로 승리한 한국은 금메달을 향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대만과의 예선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며 B조 1위를 확정했다.

A조 1위가 유력해 보이는 일본을 준결승에서 피하게 된 한국은 결승에서 일본이나 대만과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초반부터 대만을 거세게 몰아쳤고 강정호(3점), 오재원(2점), 박병호(1점) 등의 홈런포로 6점을 뽑으며 대만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1회 민병헌과 손아섭의 연속 안타에 이어 김현수의 2루타로 2점을 뽑았다. 이어진 무사 2, 3루에서 강정호가 좌중간 3점 홈런을 날렸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이어 또 한번 대만전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대만 선발 왕야오린은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1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한국은 두 번째 투수 정가이원을 상대로 오재원이

24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남자 야구 조별예선 한국 대 대만의 경기 2회말 1사 상황에서 박병호가 솔로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10-0 콜드게임 승… 대회 2연패 눈앞

우월 2점 홈런을 날려 1회에만 7점을 뽑았다.

2회에는 박병호가 1점 홈런을 때려 리그 '홈런왕'의 위력을 뽐냈다. 이어 1사 만루에서 강민호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9점째를 챙겼다. 두 경기 연속 콜드게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추가 점수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8회 2사 만루에서 이재원의 중전 적시타로 콜드게임을 완성했다.

한국 선발 양현종은 4이닝을 2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고, 차우찬(2이닝)-한현희(1이닝)-안지만(1이닝)-임창용(1이닝)의 완벽 계투가 이어지며 완봉승을 합작했다.

대만은 콜드게임으로 심각게 몰려났지만 만약 결승에서 다시 만난다면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할 수 있어 한국으로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대만에는 갑작스러운 허리 부상을 당한 장샤오칭과 쿠즈웨이아 천관위 등 에이스급 선발 투수들이 있다. 그러나 예선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한국을 상대로 무리한 경기를 할 필요가 없어 투수를 아꼈다.

대만은 예선전까지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준결승 이후부터 진검승부를 펼친다는 작전을 세웠다. 따라서 이날 경기만으로 대만의 전력 자체를 평가하기는 우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사재혁 복귀전 아쉬운 퇴장

사재혁이 용상 3차 시기에서 실패한 뒤 관중석의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상 한국신에도 용상 실격패

불굴의 역사 사재혁(29)이 아쉽게 실격으로 탈락했다.

사재혁은 24일 인천 달빛축제정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85kg급에서 용상 1-2-3차 시기를 모두 실패해 실격당했다. 인상 171kg에 성공하며 메달 기대감을 높였지만 용상에서 한 번도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다.

사재혁은 인상 2차시기에서 171kg을 들어올린 후 끝을 아끼기 위해 전략적으로 3차 시기를 포기했다. 171kg은 1kg 넘어선 한국 신기록이자 로스다마 키아누시(172kg 이란)에 불과 1kg차 뒤진 인상 부문 2위 기록이었다.

그러나 용상에 나선 사재혁은 207kg을 신청한 1차시기에서 바벨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는 저크 동작에는 잡았으나 머리 위로 들어올리지 못했다. 같은 무게를 신청한 2차 시기에서도 바벨을 놓쳤다. 3차 시기 210kg에 도전했으나 바벨을 머리 뒤로 떨어뜨렸다.

사재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77kg급 경기에서 경기 도중 팔꿈치가 탈구되는 큰 부상을 당하고 긴 재활을 통해 바벨을 잡았으나 국제무대 복귀전은 실패로 끝났다.

이날 경기에서는 중국의 텐타오(중국)가 인상 163kg·용상 218kg 합계 381kg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유순호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56	32	27
2	한국	26	23	25
3	일본	20	26	27
4	카자흐스탄	6	7	13
5	북한	4	5	3

<24일 현재>

한국 펜싱 역대 AG 최고 성적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 동반 우승 '金 8'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다.

구본길(25), 김정환(31), 오은석(31·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우영(32 서울메트로)으로 이뤄진 대표팀은 24일 경기도 고양 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대회 결승에서 이란에 45-26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2002년 부산 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국제펜싱연맹(FIE) 랭킹 1위 구본길을 선두와 8번에 배치했다. 랭킹 2위 김정환과 13위 원우영이 뒤를 받쳤다. 이란은 준결승에서 2006·2010년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중국을 상대로 45-44, 1점 차 대역전극을 펼치고 결승에 올랐지만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개인전 결승에서 김정환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구본길은 단체전 승리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앞서 열린 펜싱 여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도 한국은 금메달을 따냈다.

남현희(33), 오하나(29·이상 성남시청), 전희숙(30·서울시청), 김미나(27·인천 중구청)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중국에 32-27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5회 연속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2002년부터 4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을 딴 남현희는 2006년과 2010년 개인전에서도 우승하며 아시안게임에서만 6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전희숙은 이번 대회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닷새째 진행된 이번 대회 펜싱에서 8번째 금메달을 거둬들인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의 한국, 2006년 도하와 1990년 베이징 대회의 중국이 세운 단일 대회 펜싱 최다 금메달 기록(7개)을 넘어섰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휩쓴 한국 펜싱은 25일 단체전 여자 에페와 남자 플뢰레에서 역대 최초 두자릿수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순호기자

남현희 전희숙

손연재 '후광 효과' 인천으로

세계선수권 첫 메달… AG 심판진에 '눈도장'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 연세대)가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획득하면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홈 어드밴티지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됐다.

손연재는 23일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2014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후프 결선에서 17.966점을 기록해 야나 쿠드랍체바(18.816) 마르가리타 마문(17.450점·이상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선수의 최초 메달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손연재의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15.366점 43위)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한국 리듬체조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다.

손연재가 이번 대회를 통해 심판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성과다. 심판들이 판정된 체조 경기에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심판 대부분이 아시안게임 심판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 성적은 이시안게임에서의 판정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등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심판들은 챔피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관대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 손연재는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라는 이미지를 심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후광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손연재는 앞서 후프와 볼 예선에서 17.350점, 17.483점으로 각각 6위와 7위로 결선 무대에 올랐다. 리본과 곤봉 종목 경기가 끝난 뒤 점수를 합산해 24위 안에 들면 26일 열리는 개인종합 결선에 진출한다.

손연재는 시상식 뒤 소속사인 IB월드와이드를 통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게 돼서 기쁘고 벅차다"면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집중해 좋은 성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손연재가 출전하는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 종합 예선과 결승은 다음달 1일과 2일 열린다.

한편 FIG 트위터 공식계정은 손연재의 후프 결선 연기가 끝나자 "매우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연기였다. 아주 멋지고 훌륭하며 경이로운 마무리"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광종호 '밀집 수비 뚫어라'

김판곤 감독의 홍콩 버틴 후 승부차기 전략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전에서 복병 홍콩을 상대한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김판곤 감독의 홍콩과 2014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을 펼친다.

홍콩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 대표팀이 그리 걱정할 상대는 아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윤일록(서울)·김신욱(울산) 이종호(전남) 등이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빠지며 공격진에 전력 누수가 생긴 점은 경기를 어렵게 끌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의 수는 '밀집 수비'다. 무승부로 버틴 뒤 승부차기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 홍콩은 기본 4-1 포메이션으로 수비라인을 두텁게 내린 뒤 역습을 통해 단 방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더불어 홍콩의 사령탑은 국내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에서 수석 코치와 감독 대행을 맡았던 김판곤 감독이다. 한국 선수들을 잘 아는 면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대표팀이 홍콩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수비적 빈공간을 노리는 기동력이 필요하다. 이날 경기에서 대표팀은 라오스전과 비슷하게 이용재(V바렌 나가사키)를 최전방 공격수로 띄우고 이재성(전북)을 주위 빠른 패스로 홍콩의 밀집 수비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콩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판곤 감독은 이광종 감독과 선후배 사이다. 대한축구협회(KFA) 지도자 강습을 받으며 함께 지도자의 길에 나섰고 이 감독은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며 국내에서 지도자로 인정 받았다.

김 감독은 2009년 홍콩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그해 동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정혁진기자 jhj@

2014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일정

25일(목)

- **양궁** 계양아시아드 양궁경기장
  - 컴파운드 남자 단체 1/8강·8강전(9시30분)
  - 컴파운드 여자 단체 1/8강·8강전(9시30분)
  - 컴파운드 남녀 개인 32~8강전(10시40분)
- **야구** 목동야구장
  - 조별예선 한국-홍콩(18시30분)
- **배드민턴** 계양체육관
  - 남녀 개인전(9시30분·계양체육관)
- **농구** 삼산월드체육관
  - 남자 본선 한국-요르단(13시30분)
- **비치발리볼** 송도글로벌대학 비치발리볼장
  - 남녀 16강전(9시)
- **볼링** 안양호계체육관
  - 남자 2인조 스퀴드 A(9시) 남자 2인조 스쿼드 B(14시30분)
- **사이클** 인천국제벨로드롬
  - 남자 경륜(10시) 여자 옴니엄 500m 타임트라이얼(10시24분)
  - 여자 스프린트 4강 결승전(16시)
  - 여자 옴니엄 플라잉랩 250m 타임트라이얼(16시8분)
  - 여자 옴니엄 25km 포인트 레이스(16시57분)
- **승마** 드림파크승마장
  - 종합마술 개인전 크로스컨트리(9시)
  - 종합마술 단체전 크로스컨트리(9시)
- **축구** 고양종합운동장
  - 남자 16강전 한국-홍콩(20시 고양종합운동장)
- **펜싱** 고양체육관
  - 여자 에페 단체전(9시) 남자 플러레 단체전(12시30분)
- **체조** 남동체육관
  - 남녀 개인전 결승(19시)
- **골프** 드림파크컨트리클럽
  - 남녀 개인전 라운드(7시20분) 남녀 단체전 라운드(7시20분)
- **핸드볼** 선학핸드볼경기장
  - 남자 본선 한국-이란(16시)
- **하키** 선학하키경기장
  - 남자 예선 한국-말레이시아(19시)
- **조정** 충주 탄금호 조정경기장
  - 남녀 개인전 결승(10시)
- **요트** 왕산 요트경기장
  - 남자 딩기420레이스 레이저레이스 미스트랄레이스 RS:X레이스 옵티미스트레이스(11시)
  - 여자 딩기420레이스 29er RS:One레이스 RS:X레이스 옵티미스트레이스 레이저레이디얼(11시)
  - 오픈 호비-16레이스(11시)
- **세팍타크로** 부천체육관
  - 남자 단체 예선 한국-인도(9시)
  - 여자 단체 예선 한국-인도(14시30분)
- **사격** 옥련국제사격장/경기도 종합사격장
  - 남자 50m 소총복사 본선(9시) 남자 단체 50m 소총복사 결승(9시) 남자 25m 스탠다드 권총(9시)
  - 남자 단체 25m 스탠다드 권총 결승(9시) 남자 10m 러닝타겟 본선(9시) 남자 단체 10m 러닝타겟 결승(9시)
  - 남자 50m 소총복사 결승(11시30분)
  - 남자 10m 러닝타겟 준결승·결승(14시30분)/
  - 남자 더블트랩 본선(9시) 남자 단체 더블트랩 결승(9시)
  - 여자 더블 트랩 결승(9시) 여자 단체 더블 트랩 결승(9시)
  - 남자 더블트랩 준결승·결승(14시30분)
- **스쿼시** 열우물스쿼시장
  - 예선 A조 경기(10시 열우물스쿼시장)
-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 남자 접영50m·자유형100m·배영200m 예선,
  - 여자 평영50m·자유형400m 슬로우 이트
  - 혼계영 4X100 예선(9시)
  - 남자 접영50m·자유형100m·배영200m 결승
  - 여자 평영50m·자유형800m 패스트 히트
  - 혼계영 4X100 결승(19시)
- **테니스** 열우물테니스경기장
  - 남녀 단·복식, 혼합복식(10시30분)
- **트라이애슬론** 송도센트럴공원트라이애슬론장
  - 여자 결승(10시) 남자 결승(14시)
- **배구** 안산상록수체육관
  - 여자 예선 한국-일본(19시30분)
- **역도** 송도 2.3호 근린공원
  - 여자 75kg A그룹(16시) 남자 94kg A그룹(19시)
- **수구** 드림파크수영장
  - 남자 예선 한국-카자흐스탄(19시)

연합뉴스